

大學文化와 自治活動

黃 文 秀
(慶熙大 國民倫理學科)

I

大學文化는 單一한 것이 아니라 多様하고 多層的인 것이다. 大學文化에는 그 文化를 구성하는 여러 階級の 下位文化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教授集團·大學生集團 등이나, 흔히 大學의 機能으로 지적되고 있는 研究·授業·社會奉仕 등 대학의 여러 集團과 機能에 따라 자기 독자적인 文化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大學文化는 大學을 구성하는 집단과 그 기능에 따라 다양하고 다층적인 文化들이 형성되면서도 그 文化들이 有機的 關聯을 갖고 調和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대학문화의 한 構成要素로서 大學生文化를 말할 수 있다. 그 대학의 대학문화와 關聯을 가지면서도, 교수 등 대학을 구성하는 다른 집단의 문화와는 다른 독자적인 대학문화의 형성은 가능한 일이고 또한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학문화 형성의 主軸은 대학생의 자치활동이다. 대학생의 자치활동 없이는 대학문화는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학생은 자치활동을 통해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갖게 되므로 대학생 자치활동은 대학문화의 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

이다. 대학생 자치활동의 중요성도 바로 이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바람직한 대학문화 형성을 위해 대학생 자치활동이 어떤 토대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바람직한 대학생 자치활동의 형태는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한다.

II

대학문화는 대학문화의 下位文化이다. 그러므로 대학문화의 형성에서 대학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바람직한 대학문화 형성이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일정한 大學文化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학생 자치활동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대학문화가 바람직한 대학문화 형성의 토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학에 과연 바람직한 대학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近代의 大學의 역사를 가장 짧게 解放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半世紀를 바라보게 되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大學文化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 바람직한 대학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大學文化가 있는가라고 反問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리라고 짐작된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內實을 다져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時期를 戰爭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 가는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대학은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형성할 수 있던 시기를 他律 속에서 보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도 대학문화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대학의 自律性의 확보라고 할 것이다. 대학의 自律 없는 대학문화는 참된 대학문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의 特性 또는 大學의 傳統이라는 말을 한다. 대학의 특성이나 전통은 그 대학의 대학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그 특성과 전통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衆論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 동안 대학들이 劃一的인 他律 속에서 그 대학의 독특한 대학문화를 상실해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政府는 大學自律化措置로 대학의 自律을 회복시키는 政策을 내세웠다. 이 措置가 名實相符한 自律化措置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도 提起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論外로 삼기로 한다.

다만 大學의 自律化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가 이룩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의 자율화조치는 대학이 자율성을 회복하는 客觀的 與件을 造成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의 自律化조치로 하루 아침에 대학의 自律化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만일 정부가 일정한 내용을 가진 自律化措置를 하고 그것을 대학이 받아들여서 施行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대학의 자율화가 아니고 일종의 他律이 되는 것이다.

대학의 참된 自律化는 대학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이 自律的 能力을 갖지 못한 때에는 대학의 자율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상당한 기간을 劃一的인 他律 속에서 지냈고 그것이 慣性化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상태이므로, 대학의 自律化는 상당한 전통과 상당한 시간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政府의 대학 자율화조치가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건전한 條件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大學自律化의 大學外的 與件造成으로서 자율화의 始發點은 될 수 있더라도 自律化의 完結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에 自律性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이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대학이 진정한 自律性의 회복을 위한 전통을 꺾고 있다면, 이 전통을 이기고 대학이 참된 自律性을 확립할 때에 비로소 바람직한 大學文化는 형성될 것이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대학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대학생문화의 모태가 될 대학문화가 이와 같은 실정에 있다면, 대학생문화는 그 건전한 토양을 갖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고 건전한 대학생문화의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前提條件은 大學文化가 튼튼하게 자리잡기 위한 대학의 自律性의 土着化라고 할 것이다. 大學文化가 大學生文化의 方向과 內容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대학생문화에서 대학문화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건전한 대학생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건전한 대학문화의 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각 대학에 건전한 大學文化가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대학문화의 틀 속에서 대학생문화, 그리고 대학생문화 형성의 토대인 대학생 자치활동의 형태는 독자성을 갖고 형성될 것이다.

대학문화가 아직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대학생 자치활동이 혼란을 겪는 중요한 要因의 하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要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진정한 自律性이 요구되는 것이다.

Ⅲ

대학문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생문화에서도 自律性의 확립은 기본적 조건이 된다. 대학문화 형성의 基盤인 대학생 자치활동이 이미 '自治'를 말하고 있는 것은 自律性을 前提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대학생이 어느 정도의, 곧 대학생으로서 자치활동을 하기에는 모자라지 않는 自律性을 가졌다고 인정한다. 대학에서 대학생에게 끊임없이 強調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율적인 대학생활동인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 대학생활동을 위해 自治活動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의 자치활동은 自治能力으로서의 대학생의 자율적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러한 자치활동을 통해 대학생의 자율적 능력은 더욱 提高되고 튼튼해지는 것이다. 대학생의 自治活動은 스스로의 自律性을 바탕으로 해서 自律性을 더욱 成長시키려는 활동이며, 대학생문화는 이러한 自律性의 結實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대학생의 自律性에 대한 우리 社會의 태도는 相反되는 두 측면을 갖고 있다. 곧 한편으로는 대학생의 自律的 能力을 인정하고 자율적 생활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자율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대학생의 자율적 능력은 미숙한 것이다. 이 미숙한 능력을 더욱 가다듬기 위해 대학생 자치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 자치활동이 다양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생의 全人的 人格의 형성을 위해서는 대학생의 자율적 능력이 골고루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자치활동을 통해 限定된 분야에 대한 자율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한 자율적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 문을 나서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사회에 무리없이 자율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대학생의 자율적 능력을 인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학생의 자율적 능력이 미쳐서는 안 되는 特定한 禁止區域

을 설정하는 것은 自己矛盾이라고 하겠다.

대학생의 자치활동은 그 대학문화의 構造 속에서 대학생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全人的 人格 또는 全般的인 自律的 能力을 함양할 수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자치활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자치활동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자치활동을 위한 自治組織을 대학생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어떤 조직형태, 어떤 운영방식을 가질 것인가를 대학생 스스로의 決定에 맡길 때, 대학 자치활동의 자율성은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자치조직에서 대학생의 자율성이 제한 없이 발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날의 學徒護國團이라는 學生組織이 自治的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음은 세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학도호국단이 폐지되고 이른바 總學生會復活이라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지금도 대학생의 자치조직에서 자율성에 대한 제한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文教部五原則"도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 불가피한 自律性의 留保措置이고 진정한 대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대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制約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의 대학생 자치조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自治組織加入에 대한 대학생의 任意性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은 學則에 의해 누구든 自治組織에 加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대학생의 自律的 選擇權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대학생의 자치조직이 대학생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을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대학생 개개인이 자치조직에 소속하는가 또는 소속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각자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 사실은 全校生을 대상으로 하는 單一한 自治組織 자체가 타성적인 學徒護國團의 發想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자치조직은 多元의 일수록 좋다고 생

각되며, 多元的인 자치조직이 있을 때 대학생들은 任意로 한 자치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대학생 자치조직도 한편으로는 學則의 규정에 의해 모든 대학생을 總學生會에 義務的으로 加入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클活動을 인정하여 任意의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義務的 加入이 남아 있는 한, 대학생의 任意性은 제약 받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의 자치활동이 자율적 능력에 의한 大學生의 自治인 이상, 그 加入부터 任意性의 保障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大學當局이나 教授의 指導와 監督의 문제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大學文化가 특특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처럼 大學文化의 형성 자체가 대학의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학 당국이나 교수의 자치활동에 대한 감독이나 지도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학생의 자치능력, 자율적 능력이 미숙함을 전제로 할 때, 더구나 組織과 그 운영에 대한 경험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학 당국이나 교수의 적절한 지도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그 지도가 監督과 干涉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協助를 의미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대학 당국과 교수의 지도가 監督과 干涉을 의미하는 支配的 指導라면 그것도 자치활동에 대한 他律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他律의 餘地가 대학생들에 의한 指導教授制의 거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指導가 大學生의 未熟性을 補完해주는 協助的 指導라면, 그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기능을 大學文化 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最善의 상태라고 생각하여 앞에서 大學文化가 自治活動을 통해 형성되는 대학생문화의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이며 基礎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IV

필자는 대학생 자치활동에서 自律性和 任意性

의 保障을 강조했거니와, 그것은 大學生文化의 多樣性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大學生文化가 多樣해질 때, 각 대학의 특성과 傳統은 독특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 각 대학의 特性喪失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할 수 있겠지만, 大學生文化의 劃一性도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이 劃一性을 극복하고 대학생문화가 多樣해질 때, 대학 나름의 特性和 전통은 쉽게 형성될 것이다.

대학생문화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대학생 자치조직의 多元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多元化의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義務的 加入을 규정된 劃一的 自治組織부터 청산되어야 한다.

대학생 자치조직은 學術研究, 宗教活動, 奉仕活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學會 및 서클활동이 그 核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다양하고 生動하는 모든 관심을 包容할 수 있는 다양하고 制限없는 學습과 서클활동을 保障하는 것이 대학생 자치조직의 多元化를 위한 前提인 것이다.

이 多元的 자치조직의 有機的 關聯을 위해서는 學습 및 서클의 聯合體를 조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 聯合組織은 각 學會 및 서클의 獨自의 활동을 보장하면서 相互協助를 促進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생 자치조직이 多元化될 때, 대학생은 자기 그들의 관심에 따라 任意로 자기가 소속할 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自律的 參與를 통한 創造的 寄與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생의 政治活動이다.

현재 대학생의 정치활동은 학칙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자치조직이 그동안 즐기차게 정치활동을 전개해 왔고, 그것이 社會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단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지는 효과적일 때에 비로소 제 몫을 하는 것이다. 그 禁止條項이 死文化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대학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逆效果를 일으킬 수도 있다. 無條件의 禁止처럼 위험한 것도 없는 것이다.

대학생 중에는 이미 參政權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치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현실을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학생의 정치적 관심이 무리 없이 表出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대학생의 정치활동도 社會가 갖고 있는 限界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른바 左傾活動이나 反國家的 活動은 어느 國民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대학생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안에서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금지가 대학생들에 의해 遵守되리라고 믿는 사람도 적은 것이다. 正常的이고 건전한 政治活動의 허용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대학생의 學內에서의 政治活動을 서클次元에

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고려의 여지가 있는 方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곧 既成政黨의 學內組織을 서클次元에서 制度的으로 수용하는 것은 첫째 대학생의 정치적 관심의 合法的 表出을 위한 기구가 제도화되고, 둘째 현재 劃一的이고 偏重된 대학생의 정치적 의식의 多樣化的 길을 열며, 셋째 대학생의 정치적 의견이 政黨을 통해 代辯될 수 있는 通路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政黨活動이 學術活動, 宗教活動, 奉仕活動 등과 함께 대학에서 正常的인 軌道를 찾게 된다면, 대학생이 장차 社會에 나가 民主市民으로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여튼 대학생 자치활동은 多樣하고 多元的인 것이 되어야 하며, 이 다양하고 多元的인 활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하나의 大學生文化로 나타날 때, 그 대학생 문화가 가장 바람직한 문화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